

나만의 망원경으로

새로운 세상 발견하기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

백진주_문화정보학과 13학번



유타주 의회 의사당 'Utah State Capitol'에 방문했을 때 찍은 의사당 전경

우리대학은 미국, 영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주요 국가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의 다양한 기업, 학교, 정부, 공공단체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지난 학기 미국의 도서관과 학교에서 전공에 걸맞은 인턴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진주 학생에게 생생한 후기를 들어본다.

미국 도서관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다

문화정보학을 전공하는 나는 평소 해외 여러 도서관의 운영방식과 이용자 서비스 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미국의 각 도서관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또한, 학과 특성상 마지막 학년에는 실습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직접 미국에 가서 도서관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은 바람과 함께, 실습을 해야 한다는 4학년의 현실을 고려해 교내 해외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다. 처음 선발과정에서 학교성적 평가와 영어 인터뷰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해본 영어 면접이라 많이 떨렸던 것 같다. 선발된 후에는 학교에서 연계해준 인터네셔스 어학연수센터를 통해 학생비자(F-1)와 미국 휴스테이 컨택 등을 진행했다. 나는 평소 토플에 알러지가 있어 휴스테이를 선택하기까지 무척 신경을 많이 썼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갔을 땐, 바로 앞의 학생이 관계자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저리 둘러보는 행동을 하다가 밖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보게 됐다. 미국이 보안과 테러에 얼마나 민감한 나라인지 그때부터 실감할 수 있었다.

인턴십 과정은 총 4주의 영어집중 과정과 8~9주의 인턴십 과정을 거친 후, 그동안 배운 영어를 재정리하는 4주의 영어집중 과정으로 진행된다. 나 역시 영어집중교육을 받았는데,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레벨 테스트를 통한 반 배정을 받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함께 미국생활에 적응해나갈 수 있었다. 마지막 주에는 한국에 오기 전 미리 써온 미국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첨삭을 받았고, 이를 마친 후 본격적인 미국 인턴십에 들어갔다.



내가 근무했던 Hawthorne Elementary School에서 할로윈 파티가 열렸을 때 아이들 모습



뉴욕 여행 중에 들렀던 뉴욕 공공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의 웅장한 외관



Hawthorne Elementary School 내 도서관에서 지역 서점들과 협력하여 판매하던 책들



뉴욕 공공도서관 안에 있는 서점에서 다양한 책들을 둘러보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는 나

또, 선생님을 도와 수업을 보조할 때엔 해당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덧셈과 뺄셈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법, 접속사를 사용하는 법 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물론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도 있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수업에 너무 집중을 하지 못해서 무릎에 앉히고 다독여주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담당 선생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위해 선의로 행동한 것은 알고 있으나, 무릎에 앉히고 수업하는 것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고 오히려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셔서 이후부터는 좀 더 주의할 수 있었다.

지난 미국 인턴십 생활을 돌아보면, 16주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정도로 값진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 스스로 뿐만 아니라 기분이 든다. 특히, 미국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책이 많다는 미국의 회도서관부터 시골의 작은 도서관까지 틀 나는 대로 방丈해 보았는데,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한 도서관은 꽃을 팔고 책을 파는 상점이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생활하다 보니 인생관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 또 다른 세상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후배들도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자신만의 망원경을 찾았으면 좋겠다.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격 | 총 평균 평점 2.6 이상이며, 토익 65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회화능력을 보유한 재학생

교육내용 | 미국 현지 인터네셔스 어학연수센터에서 영어교육(Intensive English 4주~12주) 과정을 마친 후 이어서 미국 현지 기업, 초등학교, 정부, 공공단체 등에서 인턴 근무(무급)

학점인정 | 현지 수료증으로 최대 12학점 인정, 5개월 이상 최대 18학점 인정

장학지원 | 연수 수료 후 본교 등록 시 한 학기 등록금 50% 감면(연수학기)가 출입 전 최종학기인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 파견 후 수학보조금 150만 원 지급